

연금시장리뷰

경제현안

동향: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산업 이슈: 중국 10대 도시군 개발 계획 소개 - 라오중난

경제 이슈: 2014년 주택시장 전망과 시사점

퇴직연금

퇴직연금 이슈: 건전한 재정을 위한 개인신용 관리

세심록

단풍이 주는 교훈

Book Review

제로 성장 시대가 온다



본 자료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작성된 현대증권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발행하는 보고서로 퇴직연금 관련 이슈 및 경제현안에 대한 심명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제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우측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동향: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 실물 동향: OECD, 2014년 세계 및 한국경제전망 하향 조정

- OECD가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에 따르면 향후 2년간 세계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
 - 세계 경제: 2013년 경제성장률은 기존 5월 전망치였던 3.1%에서 2.7%로 2014년도 기준 4.0%에서 3.6%로 소폭 하향 조정됨. 특히 미국 재정위험과 신흥국 금융불안이 위협요인임
 - 국내 경제: 세계 교역 증가에 따른 수출 여건 개선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3년 기준 2.6%에서 2.7%로 상향 조정했지만 2014년 전망치는 4.0%에서 3.8%로 낮추었음
- OECD는 국내 경제의 중장기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재정지출 확대와 저금리 기조 유지를 통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고 가계부채 문제 해소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

○ 금융 동향: 글로벌 금융시장의 상승세가 국내 금융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

- 글로벌 증시의 사상 최고치 경신 등의 호조로 국내 금융시장도 대체로 안정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국내 채권시장에서 꾸준히 매수세를 보였던 외국인투자자의 매물이 증가하면서 11월 14일 2.94%에서 11월 27일 현재 2.97%로 0.03%p 상승
 - 원/달러 환율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미 달러화, 엔화 등 주요 통화의 약세가 지속되면서 11월 14일 1,067.0원에서 11월 27일 현재 1,061.0원으로 6원 하락
 - 코스피 지수는 미국 다우지수의 사상 최고치 경신 등의 영향으로 11월 14일 1,967.6에서 11월 27일 2,028.8로 61.2p 상승하며 2000시대에 재진입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11/14	11/27	
실물 지표	GDP성장률(%)	3.4	2.0	1.5	1.5	1.5 ^p	2.3	3.3	-	-
	산업생산(%)	7.2	0.8	0.3	1.2	-1.8	-0.9	0.1	3.4	-
	소비자물가(%)	4.2	2.2	2.4	1.7	1.4	1.1	1.2	0.8	0.7
	실업률(%)	3.4	3.2	3.0	2.8	3.6	3.1	3.0	2.7	2.8
	경상수지(억달러)	54.9	431.4	145.6	149.4	100.2	198.0	190.1	57.4	-
금융 지표	국고채3년물(%)	3.68	3.13	2.88	2.81	2.68	2.67	2.92	2.94	2.97
	원/달러(원)	1,083.2	1,126.8	1,132.9	1,090.3	1,084.8	1,122.8	1,110.8	1,067.0	1,061.0
	코스피지수(P)	2,100.7	1,930.4	1,900.5	1,997.1	2,004.9	1,863.3	1,997.0	1,967.6	2,028.8

주: 1) 실물지표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금융지표 중 국고채 3년물 금리와 원/달러 환율은 기간 중 평균값이며 코스피 지수는 기간말 기준임.

2) 실물지표 중 11월 14일은 9월, 11월 14일은 10월 수치임. 단, 2013년 3/4분기 GDP성장률은 속보임.

□ 산업 이슈: 중국 10대 도시군 개발 계획 소개 - 랴오중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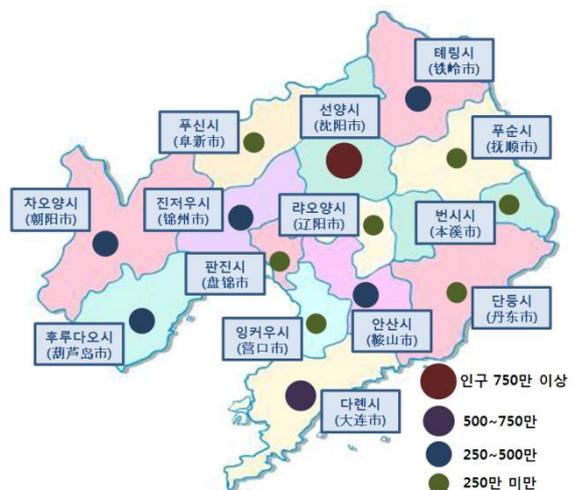
○ 랴오중난 도시군(辽中南城市群) 개요

- 랴오중난 도시군은 중국 동북 지역 최대의 경제권을 형성
- 랴오중난 도시군이 위치한 랴오닝성은 동북 3성 중 하나로 4,255 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GRDP 는 2.2 조 위안(지린성의 2.1 배, 헤이룽장성의 1.8 배)
- 선양시 및 다롄시를 중심으로 도시군 형성 및 지역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업 경제 역사가 100 년 이상인 중국의 대표적인 중공업 중심 지역

< 중국 10 대 도시군 >



< 랴오닝성 도시 현황 >



○ 랴오중난 도시군 경제의 특징

- (중국 동북 지역의 관문) 베이징, 상하이 등 중심 도시와 중국 동북 지역 사이의 사고 역할을 담당하여 자연스럽게 물류 및 상품 시장이 성장
- 베이징~선양 간 고속철도, 단둥~베이징~티벳 간 고속도로가 구축되어 있으며, 중국 10 대 항만(다롄항) 및 8 대 공항(선양타오셴공항)을 보유
- 중국 중심 지역과 동북 지역 간의 물류를 전담하면서 2011 년 기준 동북 3 성 전체 물류량의 62.6%를 차지

- 이에 따라 동북 지역 중 가장 많은 도소매 시장이 개설되어 있으며, 동북 3성 도소매 판매액의 67.6%가 라오닝성 도시군에서 거래(2011년 기준)
- (제조업 중심의 지역 발전) 다른 도시군과 달리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이 성장
 - 라오닝성 전체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42.3%에서 2011년 48.1%로 증대된 반면, 서비스업은 41.0%에서 36.7%로 감소
 - 장비제조, 철강·금속, 석유화학, 식품 등 4대 기간산업이 지역 경제를 견인 (라오닝성 도시군의 전체 광공업 매출 중 4대 기간산업의 비중은 60.1%)
- (국제교역 및 투자유치 활발) 고부가 수출이 증가하는 동시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늘면서 빠른 속도의 지역 발전이 예상
 - 전통적인 수출 품목인 섬유·의류 및 농림수산물식품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철강·금속, 운송기기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
 - 2001년~2011년 라오닝성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은 연평균 22.8% 증가하여 같은 기간 중국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대비 비중은 6.6%에서 20.9%로 증가

○ 주요 경제 발전 계획

- (도시지구 경제 확충) 라오닝성 정부는 도시 개발 계획을 수립하며 도시 경제 규모 확충을 위해 노력
 - 라오닝성 정부는 '도시지구 경제 2차 3년 배증 프로젝트'를 통해 2014년까지 도시 경제 비중 60%, 도시화율 80%, 클러스터 도시 구축 등을 추진
- (동부 연해지역 수준 달성) 지방 경제를 중국 동부 연해 지역의 수준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12·5 계획의 주요 목표로 수립
 - 노후 공업 기지 개선 및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 도로 인프라 확충, 도시화 등과 함께 시장 경제 체제의 완성을 발전 계획의 주요 목표로 설정

□ 경제 이슈: 2014년 주택시장 전망과 시사점 - 지역별·규모별 차별화 심화된다¹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비수도권은 활황을 지속하고 있다. 규모별로 중소형 강세, 대형 약세 등 규모별로도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4.1, 8.28 부동산대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최근 주택시장의 기대치가 반등하고 있다.
- 주택시장관련 거시환경에 상승과 하락 요인들이 혼재된 가운데 주택시장 전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극화된 주택시장의 수급분석이 중요하다. 전용면적 85m²를 기준으로 주택을 중소형과 대형으로 구분하는 정부 방침에 맞게 지역별로 아파트 비중이 높은 수도권의 경우 4인 가구, 비수도권의 경우 3인 가구를 기준으로 중소형과 대형 주택 수요로 맞추었다. 그리고 주택건축실적에서 멸실주택, 미착공주택, 용도변경 등을 적절히 차감하여 실제 주택 순공급을 고려하였다. 신규 수요 측면에서의 가구 증감을 보면 2013년 이후 3인 이하 가구는 수도권의 경우 매년 약 18만 가구 증가, 비수도권의 경우 매년 20만 가구 이상 증가하는 반면, 4인 이상 가구는 수도권의 경우 매년 약 5만 가구씩 줄어들고,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매년 8만 가구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반면 신규 공급으로 미분양주택과 주택건설실적을 사용하였다. 비수도권의 축소 현상과 달리 수도권의 미분양주택은 중대형 위주로 증가하고, 주택건설실적은 2011~12년 비수도권 위주의 주택건설 증가가 향후 1~2년간 공급으로, 2013년 이후의 축소는 그 이후 공급 감소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규모별 (2×2) 시장에서의 향후 주택시장의 수급 방향을 판단하면 수도권-중소형시장은 초과공급이 작용하고 있으나 향후 초과수요로 전환 가능하고, 수도권-대형시장은 초과공급이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비수도권-중소형시장은 2014년 초과수요가 일시 축소 가능하나 이후 다시 심화되고, 비수도권-대형 시장은 초과공급이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¹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13-48호, 2013. 11. 15 “2014년 주택시장 전망과 시사점” 을 요약 정리.

- 이러한 수급방향을 기초로 2014년 주택시장 전망은 초반에는 소폭 상승·하락을 거듭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별, 규모별 차별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 전반적으로 초과공급이 상대적으로 심한 수도권 보다 비수도권이 강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규모별로 전반적으로 핵가족화,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가구의 다운사이징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중소형 강세, 대형 약세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매매시장 불안과 연관된 전세수요가 지속되면서 전세시장 불안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 주택시장의 침체와 전세가격 불안정 등이 국가 및 서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대형주택의 초과공급 해소를 주택시장의 연착륙이 시급하다. 대형주택을 창조경제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향후 중소형주택의 부족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 재연에 대비해야 한다. 민간 건설업체에 대한 중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임대차 보호기간 연장, 확정일자 법적효력 강화 등 임대차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권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전월세전환율을 포함하여 공정하게 거래 가능한 임대가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서민의 주거비 부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박덕배 전문연구위원 (2072-6216, dbpark@hri.co.kr)

□ 이슈: 건전한 재정을 위한 개인신용 관리

- 개인신용정보와 개인신용등급에 대한 이해

□ 요약

1997 년 IMF 이후 신용위험관리(Credit Risk Management)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여신 외에 개인에 대한 신용대출도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업에 대한 평가만을 주력했던 신용평가회사 외에 신용조회회사도 개인의 신용에 대하여 CSS(Credit Scoring System)를 활용한 신용평가를 시작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신용평가를 받는 개인의 숫자는 약 4,000~4,200 만 명 내외이며, 우리나라 총 인구가 5 천만 명 정도임을 생각해 보았을 때 거의 대부분의 국민에 대해 신용등급이 부여되고 있는 셈이다.

신용대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오늘날 개인의 신용등급 관리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철저한 신용등급 관리를 위해서는 자신의 신용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용정보가 어떤 정보로 구성되고, 어느 기관에 의해 공유되며, 어떤 기준으로 신용등급이 산출되는지 알아야 한다.

신용관리의 첫 걸음으로 신용평가의 기본이 되는 개인의 신용정보가 어떻게 구성되고 관계기관간 공유되는지, 개인신용정보회사(CB)에서 제시하는 개인신용등급 산정을 위한 평가 요소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 국내 신용정보 공유기관

신용정보란 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을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이다. 개인의 신용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신용정보가 어느 기관에 의해 공유되며, 어떤 기준으로 신용등급이 산출되는지 알아야 한다. 현재 국내 신용정보 공유기관은 크게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신용정보 집중기관은 종합 집중기관과 개별 집중기관으로 나뉘는데 종합 집중기관으로는 전국은행연합회가 등록되어 있고 개별집중기관으로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전문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이 등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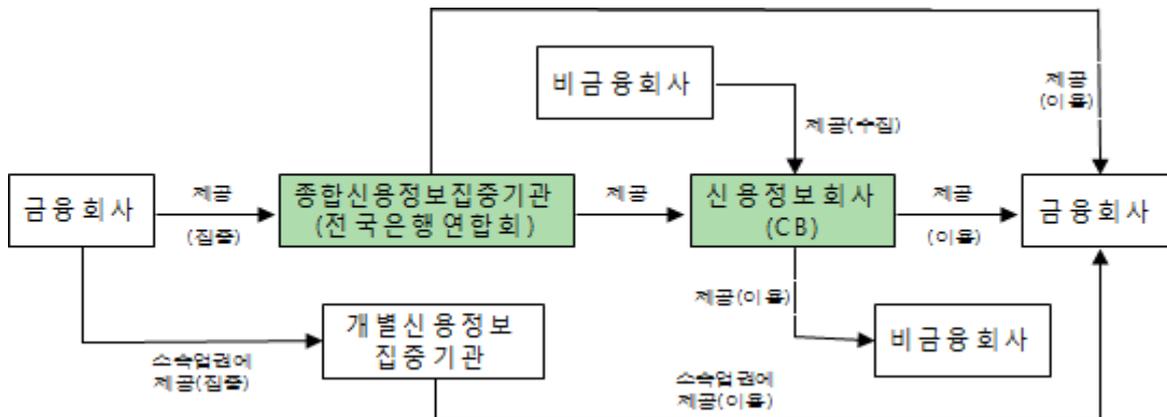
국내 신용정보 공유기관

구분		해당기관
신용정보 집중기관	종합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개별집중기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전문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신용정보회사(CB)	개인	NICE 평가정보, KCB(코리아크레딧뷰로)
	기업	한국기업데이터, NICE 평가정보, 나이스 D&B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신용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 및 신용정보 회사에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 영업에 이용하는 자 (주로 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Credit Bureau; CB)는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개인과 기업의 신용거래내역 및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 평가, 가공하여 신용정보 제공기관 및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기관이다. 이에는 개인 신용정보회사와 기업 신용정보회사가 있으며, 현재 대표적인 국내 개인 신용정보회사로는 NICE 평가정보와 KCB 가 있다. 이들은 수집한 정보와 신용등급 등 가공된 자료를 다시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나 백화점, 통신회사, 도소매업체 등 비금융회사 등에 판매한다.

한편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말 그대로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들을 일컫는데, 크게 금융회사나 비금융회사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은행과 같은 큰 금융회사는 CB 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각 회사별로 CSS(Credit Scoring System)라고 하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용정보 공유체계



○ 공적 신용정보집중기관 vs 신용정보회사

공적 신용정보집중기관(Public Credit Register; PCR)은 법령 등에 따라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으로서 현재 전국은행연합회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1995년 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 등록하여 국내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기본적인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관리하는 신용정보는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공공정보 등이 있다. 반면 회원사간 자율적인 계약에 기초하여 영리를 추구하면서 운영되는 민간기업인 신용정보회사(CB)는 신용거래 및 기타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주기적으로 축적하여 금융회사에 제공한다. 개별 금융회사 등은 CB가 발행하는 신용보고서를 통해 개인의 신용을 공유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용정보기관으로서 PCR(공적신용정보집중기관)과 CB와의 주요한 역할 차이는 개인신용정보를 가공하고 평가할 수 있는냐이다. PCR은 공적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공공기관과 관련된 특정 내용에 대한 정보 집중은 효율적으로 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기본적인 정보만 집중관리한다는 당국의 정책방향에 따라 전반적인 신용정보의 가공과 평가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반해 CB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이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의 신용정보를 평가하고 등급화 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에는 PCR이 신용정보공유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였으나 수집한 정보에 대한 가공과 평가가 가능한 CB들의 역할이 점차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성명 등 본인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황, 채무보증현황 ○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 당좌·가계 예금 개설·해지 사실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현황 ○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정보 등
공공정보	○ 국세, 지방세 및 관세 체납정보 ○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면책정보 ○ 법원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정보 등

○ 개인신용등급 평가 요소

CB 들은 개인의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평가한 후 신용평점을 부여한다. 개인 신용평점은 “개인에 대한 다양한 신용정보를 종합하여, 향후 1 년 이내 90 일 이상 장기 연체 등 신용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위험도)을 통계적 방법에 의해 점수로 수치화한 것”인데, 신용평점 점수가 낮을수록 리스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 신용평점의 주요 평가요소는 NICE 와 KCB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는데 두 회사가 약간 다르지만 상환이력정보, 현재 부채수준, 신용거래기간, 신용형태 정보, 신용조회정보 등을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첫째, 상환이력정보는 채무의 적시 상환여부, 과거의 채무 상환을 미룬 경험 등을 나타내는 정보로 주로 연체와 관련된 정보를 의미한다. 연체가 없는 건전한 상환이력은 신용 평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채무를 적시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 정보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현재 부채수준은 현재 보유한 채무의 수준을 나타내는 정보로서 크게 대출 정보 및 카드 정보로 구분된다. 현재 적정 수준의 부채를 유지하면서 상환이력을 누적하면 신용평점에 긍정적이거나, 현재 부채수준이 과도할 경우 신용평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신용거래 기간은 대출, 신용카드 등 신용거래 활동을 시작한 이후의 거래기간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신용거래기간이 장기 일수록 신용평점에 긍정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정상적인 신용거래 경험이 축적된 고객은 단기 신용거래자보다 일반적으로 리스크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넷째, 신용형태정보란 개개인이 여러 형태의 신용거래를 얼마나 적절히 이용하는지에 대한 정보이다. 이런 신용 형태 정보는 대출정보 및 카드 정보의 거래 내역에서 생성되는데 이러한 대출 및 카드 거래의 이용 패턴에 따라서 신용평점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섯째, 신용조회정보는 본인이 아닌 신용정보 이용자(즉, 금융회사 등의 거래업체)가 본인의 신용상태를 조회했다는 기록으로, 실제 거래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조회 사실이 남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금융회사간 상품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금융상품을 찾는 고객 선택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과 같은 다른 나라에서는 10%정도의 비중을 두어 신용정보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최근 3 년간 신용거래가 전혀 없어서 신용평가가 어려운 고객에 한해서는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신용개설용 조회기록만을 평가에 일부 활용한다.

CB 들은 개인의 신용등급을 신용평점에 따라 1~10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금융회사에서도 축적된 고객정보와 거래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신용평가를 하여 등급을 산정하고 있다. CB 의 신용등급과 금융회사 자체 신용등급은 산정방법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신용등급이란 CB 신용등급을 말한다. CB 신용등급은 금융회사가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여신 의사결정을 할 때 신용거래 개시여부나 금리, 한도, 기간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신용등급에 따라 연체확률에 차이가 많아 금융회사의 대손발생 등 비용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금융회사별로 다양한 신용평가방법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대체적으로 제 1 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CB 신용등급이 최소 6 등급 이상은 되어야 하며, 7 등급 이하는 사실상 은행에서 대출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신용등급의 의미 및 분포현황

등급	구분 1)	주요 특징	분포 2)	불량율 3)
1~2 등급	최우량등급	- 오랜 신용거래 경력과 다양하고 우량한 신용거래 실적 보유 -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낮음	23.8%	0.08%
3~4 등급	우량등급	- 활발하지는 않지만 우량 거래를 지속한다면 상위등급 진입 가능 - 부실화 가능성이 낮은 수준	32.0%	0.27%
5~6 등급	일반등급	- 저신용업체와 거래관계가 있는 고객으로 단기연체경험이 있음 - 부실화 가능성은 일반적인 수준으로 신용관리에 주의가 필요	28.4%	1.86%
7~8 등급	주의등급	- 저신용업체와 거래 관계가 많고, 단기연체경험이 비교적 많음 - 단기적인 신용도의 하락이 예상되며 주의가 필요	12.9%	9.97%
9~10 등급	위험등급	- 현재 연체중이거나 매우 심각한 연체의 경험을 보유 -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관리가 필요	2.9%	40.70%

주 1) 해당 신용등급의 주요 특징을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며, CB 의 공식적인 구분이 아님

2) '12 년말 현재 KCB 의 신용등급 분포

3) '11 년말 현재 KCB 의 해당 신용등급 부여자중 1년 이내에 90 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자의 비율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부 부장 심현섭 (hsshim@kfb.or.kr)

□ 洗心錄

□ 단풍이 주는 교훈

가을 단풍이 절정을 지나고 있다.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보면 높고 푸른 하늘이 눈부시게 펼쳐진다. 눈을 돌려 주위를 바라보면 어느 새 산과 들이 울긋불긋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고 있다. 삭막한 도심의 거리도 은행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담쟁이 등이 노랑고 빨간 손바닥을 흔들어 출퇴근길의 여유 없는 마음을 위로해 준다.

이처럼 걸으려는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 단풍의 속을 들여다보면, 다가오는 겨울을 바쁘게 준비하는 나무의 처절함이 배어 있다. 혹독한 겨울 추위를 버텨내기 위해 가지에서 앞으로 연결되는 통로에 떨켜를 만들어 수분과 영양분의 공급을 막아버린다. 그러면 잎사귀의 엽록소가 파괴되면서 초록색에 가려져 있던 다른 색깔들이 드러나게 된다.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광합성 작용으로 축적된 나뭇잎의 성분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안토시아닌이 많은 단풍나무는 빨강, 크산토피이 많은 은행나무는 노랑, 탄닌이 많은 상수리나무는 갈색으로 물든다고 한다.

나무들이 떨켜를 만들어 수분과 영양분을 차단하고, 겨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형형색색의 단풍이 만들어지는 원리로부터 기업도 배워야 한다. 기업의 경영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항상 따스한 봄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어려운 경영환경이 예상되거나,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어야 할 때에는 충분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경영의 기본으로 돌아가 원가 절감을 하고, 제품의 차별화가 제대로 되는지 점검하고, 고객 서비스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 진짜 어려운 상황이 예상된다면, 불필요한 것들은 털어내고 꼭 필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오래 버텨낼 준비를 해야 겨울을 잘 넘기고, 따스한 봄을 맞이할 수 있다.

屈己者는 能處重하고 好勝者는 必遇敵이라.

자기의 뜻을 굽혀서 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능히 중요한 지위에 있게 되고,
이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적을 만난다.

- <출처> 『明心寶鑑』 戒性篇

□ Book Review

- 제목: 제로 성장 시대가 온다

- 거품 경제, 에너지, 수자원, 경제 체제의 문제 등으로 성장의 한계가 나타남을 증명하고, 대안 경제의 필요성 및 방법을 기술

- 저자: 리처드 하인버그(Richard Heinberg)

- 탈탄소연구소(PCI; Post-carbon Institute) 수석연구원으로, 환경·경제 전문가
- 『파티는 끝났다』, 『미래에서 온 편지』, 『블랙아웃』 등 9권 출간

○ 주요 내용

- 선물경제(gift economy; 교환경제의 반대) : 자신이 가진 것을 공동체 내에서 기꺼이 공유

- 인류 역사에서 95% 이상 동안 인간은 선물경제 체제에 의존
- 거래가 끊임없이 팽창하고 모든 것이 매매의 대상이 되고 모든 인간 활동이 금전적 가치로 평가되면서 '교환 경제'로 전환
- 20세기에는 더 추상적인 형태의 통화가 도입되어 정교한 투자 상품이 탄생하고 성장(주식, 채권, 옵션, 선물, 공매수와 공매도 등)

- GDP 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부채

- 1970년대에 금융분야에서 이루어진 혁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증권화'
- 주택 담보 대출,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대출 등의 다양한 채무 계약을 묶어 채권이나 CDO 형태로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금융 상품을 의미
- 증권화는 더 많은 투자자가 더 많은 채무에 투자하는 수단이 됨
- '규제완화'로 기업문화가 변화
- 임원들은 기업의 이익 보다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운영하고, 막대한 보너스를

2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부채담보부증권)은 회사채나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등을 한데 묶어 유동화시킨 신용파생상품을 뜻함. 회사채나 대출채권 등 기업의 채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금융 기법의 한 종류. 수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Arbitrage CDO)과 신용위험을 투자자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Balance Sheet CDO)으로 구분.

챙기고, 배당금보다는 주가를 올리는데 주력. 치솟는 주가와 금융수위에 도취한 감사, 이사회, 월스트리트 분석가가 이런 경향을 부추김

- 1990년대에 유휴 금융자본이 계속 증가하자 투자은행들은 고수익을 가져다 주는 신종 증권을 개발하기 시작
- 평가 기관들이 이들 상품을 평가할 때 위험을 지나치게 과소평가

- 에너지 고갈, 담수 부족, 식량위기, 금속과 광물의 고갈 등으로 위기 직면

- 에너지 고갈은 경제성장을 제약
- 지난 200년간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비결은 값싸고 풍부한 에너지원인 화석연료의 발견
- 특히, 석유는 세계 운송 시스템의 토대, 전 세계 교역의 토대가 되었고, 석유의 흐름이 멈추면, 전 세계 교역의 흐름이 멈춤
- 수백만 배럴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거대 유전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 발견된 유전은 크기가 작고 접근성도 좋지 않아 탐사개발 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듦
- 대다수 전문가와 유관 기관은 전 세계에서 담수가 심각하게 과용되고 수질이 악화되어 물 부족 현상이 부쩍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
- 유엔『지구 환경 전망 보고서(2007)』에 따르면, "2025년이 되면 18억 명이 절대적 물 부족에 시달리고 세계 인구의 2/3가 농업, 공업, 가사, 에너지, 환경에 필요한 물을 공급받지 못해 고통받을 것이라고 함

- 대안 경제학이 마련되고, 국민총행복 지표의 개발 필요

- 생태적 한계를 감안하여 경제 이론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자 하는 연구소와 간행물이 상당수 나오고, 대안 경제학자들은 영구 성장의 가능성과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
- '정상 상태 경제'는 인구와 소비 수준이 일정하거나 소폭 변동하고 물질과 에너지의 흐름을 최소화 하는 상태
- GDP를 국민총행복으로 전환. 국민총행복 측정 기준 : 시간 활용, 삶의 질, 통치 체제, 심리적 안녕, 공동체의 활력, 문화, 건강, 교육, 생태

HRI Leaders Forum

최고CEO와 으뜸 지성의 만남

HRI 리더스포럼은
CEO들을 위한 프리미엄급
최고경영자 포럼입니다.

[HRI리더스포럼 혜택]

- 경제·경영부터 인문사회에 걸친 다양한 주제강연
- CreativeTV(usociety.co.kr)VIP멤버십 제공
- 경제·경영도서 베스트셀러 제공(年 12권)
- 최신 경제산업 동향자료
- 리더십교육프로그램 참여기회 마련
- 경제핫이슈분석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연회비]

- 1명 : 연100만원 ■ 3명 : 연200만원 ■ 5명 : 연300만원

일정

매월 넷째주 목요일
저녁 7시

장소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시간

19:00~21:00(2h)

HRI리더스포럼에 지혜를 나눠준 연사

김난도 서울대 교수(대한민국소비트렌드의 최근 흐름과 시사점),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21세기 기업생태계와 지식의 통섭), 유홍준 영지대 교수(명작의 조건과 장인정신), 금난새 지휘자(하모니리더십), 김정운 영지대 교수(마음을 움직이는 힘)

HRI리더스포럼 사무국

· Tel. 02-2072-6246, 6247 · Fax. 02-2072-6249 · E-mail, forum@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

